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14.(수) 11:00 < 6.15.(목) 조간 > 배포 2023. 6. 14.(수)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총력 대응으로 수출 회복 앞당긴다

- 수출기업의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례 종합점검 및 지속 확대 추진
- 무역장벽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업종협회, 관계기관 협력 강화

외국의 수입 규제와 통관 애로·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수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 14.(수)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이러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탈위험화(디리스킹)를 위한 각국의 지원정책 및 통상 관련 입법 조치가 활발히 제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장기 반덤핑 조치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고, 우회 수출 등 통관 현안(이슈)과 식품 관련 현장실사 애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역외보조금 등 법령으로 인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이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와 업종협회,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해외 무역장벽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며 함께 대응해 수출 회복을 앞당기자"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손호영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5945)

정책브리핑 OPEN

붙임 1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개요**

1. 회의 개요

1 **(목적)**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애로**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의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2 **(일시·장소)** '23.6.14(수) 14:00～15:30, 서울 코엑스 205호 회의실

3 **(주최·주관)** 산업부 / 무역협회

4 **(참석대상)** 통상교섭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 등 20여 명

* 외교부, 농식품부, 국표원, 관세청, 식약처

2.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10 (5분)	▪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통상법무기획과장
14:10~14:15 (5분)	▪ **미국 우회조사 급증 동향 및 대응방안**	무역협회
14:15~14:20 (5분)	▪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대한상공회의소
14:20~14:25 (5분)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코트라
14:25~15:25 (60분)	▪ **업종별 수출애로 청취 및 토론**	-
15:25~15:30 (5분)	▪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붙임 2 무역장벽 대응 지원 관련 주요 사례

#1. (튀르키예) 나일론 장섬유 세이프가드 재심 대응

- **(개요)** 나일론장섬유 세이프가드 재심조사 개시('22.1). 조사개시 당시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0.08USD ~ 0.30USD/kg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중
- **(대응경과)** 조사대상기업에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원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피해 의견서 제출(22.7) 및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제출('22.8)하는 등 조사에 적극 대응
- **(대응결과)** 수입규제 컨설팅 지원을 통한 화섬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존 세이프가드('19.11~)대비 관세 인하((0.05~0.27USD/kg)('22.10)

#2. (루마니아) 우리 식품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지원

- **(개요)** 루마니아 검역당국(ANSVSA), EU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EU)2021/2246)에 의거하여 한국산 라면 제품에 대한 무작위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 시행 통보 및 통관지연 → 우리 기업은 추가 창고료 등 부대비용 약 11백만원(EUR 8,000) 발생
- **(대응경과)** 현지 무역관을 통해 ANSVSA에 두 차례 공식서한을 송부하여 한국 식약처의 공식증명(Official certificate)과 한국검인증기관 검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통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 요청 및 조속한 통관 촉구('23.1), 현지 공관 및 한국식약처와 공조하여 해당 규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확인 및 우리기업 대응 지원('23.2)
- **(대응결과)** 수입업체 협조 하에 독일에서 재검사 후 통관 완료. 이후, EU는 한국산 라면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 '23년 7월부로 해제 예정

#3. (말레이시아) 한우 할랄인증 취득 애로해소 지원

- **(개요)**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개발부) 할랄인증*은 육류 수입 및 유통 시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지만, 그 기준이 매우 보수적이며 소요비용과 시간 등 취득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애로를 겪음

* 상당수 기업이 수출 시 현지에서 교차 인정되는 다른 할랄인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한우 수출을 위해서는 JAKIM 할랄 인증 취득이 필수 요건

- **(대응경과)** 말레이시아 농식품부 및 종교부 장관 대상 할랄인증 승인 촉구 공문 발송('22.2), 이후 JAKIM 방한 검사를 상시 지원('22.3~)
- **(대응결과)** JAKIM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 완료('23.3). 이후, 한우 첫 수출 계약 체결 완료('23.5)